

봄방학 아이들과 함께하는 동화책 속 영화 읽기

'영화도 보고 동화책도 읽고' 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일부 개봉작들은 동화책으로도 나와 있어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화책의 내용과 영화의 내용을 함께 비교해 보며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을 듯하다. 상영이 끝난 영화들은 곧 비디오로 출시될 예정이다.



타코타 패닝이 주연을 맡은 영화 '살랏의 거미줄'은 유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콜라 읽는 재미 비교해 보는 재미

▲살랏의 거미줄(시공주니어)

연기력에서는 성인 배우 못지 않은 다코타 패닝이 주연을 맡은 영화 '살랏의 거미줄'은 겨울에 오기 전 햄이 될 운명에 처한 아기돼지 빌버가 착한 농장집 딸 린과 거미 살랏의 도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1952년 출간 이래 4천 500만부 이상 팔린 E. B 화이트의 동명의 베스트 셀러를 영화로 만든 작품으로, 뉴욕타임즈로부터 '문화적으로 완벽하고 기적적'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저자의 또 다른 작품인 '슈투어트 리틀'도 동화책과 영화로 나와 있으니 비디오 가게에서 꼭 빌려보도록 하자.

▲비밀의 숲 테라시야(대교출판)

제시와 레슬리가 자신들만의 비밀의 장소를 찾아내 '테라시야'라고 이름 짓고, 비밀의 왕국을 만들면서 우정과 이별을 배우고, 감추어진 자아를 찾아나간다는 내용을 그린 판타지물이다.

'헤리포터' 시리즈 처럼 화려한 판타지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성장담을 아름답게 그린 작품이다. 1977년 발간 당시 뉴베리상을 받았으며 원작자 캐서린 페터슨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동문학가에게 수여하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물관이 살아 있다(대교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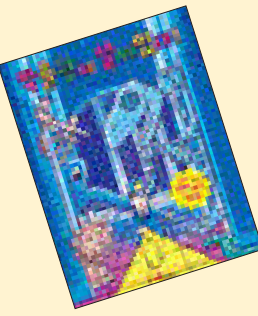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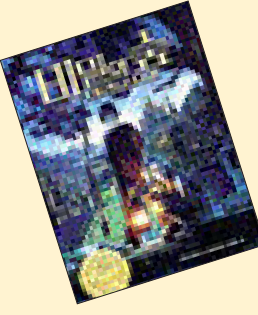
지난해 개봉돼 400만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작품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스토리와 뛰어난 특수 효과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영화가 만들어지고 난 후 동화책으로 발간된 '박물관이 살아 있다'는 '아이즈 에이지' 스파이더맨 등 영화 동화를 쓴 레슬리 골드만이 쓴 책으로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 등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하며 어린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들 인물에 대해서는 책 후반에 따로 정보를 정리해 두었다. 유아들을 위한 그림책 '박물관이 살아 있다'(대교출판)도 출간돼 있다.

▲천녀여우(에담)

'마리 이야기'의 이생강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으로 아름다운 영상과 손에진·공정권 등의 목소리 연기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환상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인간이 되고 싶은 여우비의 모험담과 소년과의 애절한 우정과 사랑이 펼쳐진다. 2002년 '행복한 청바지'로 샘타당 동화 부문에 당선된 후 '안녕 스톨 나무'로 제8회 문화동네 어린이 문학상을 받은 아동문학가 하은경씨가 집필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임방울국악진흥회 신임 김 포 천 이사장

“관소리는 문화도시 중요 콘텐츠”

“젊은 세대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관소리 본령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변형·변화 필요”



“관주와 전남 지역은 국악의 요람이자, 관소리의 고향이죠. 하지만 전주가 대서늘들이 등을 통해 지방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방울'이라는 전무후무한 국악을 배출한 호남 지역이 진정한 관소리의 고향으로 우뚝 서도록 진흥회가 큰 역할을 하겠습시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포천(73)씨는 “임방울 선생의 업적과 예술혼을 기리는 사업을 통해 관소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관소리가 문화중심도시의 중요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 큰 행사인 임방울국악제의 투명한 운영 등을 통해 권위를 더욱 높이고 수상자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김 이사장은 또 국악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악교실 운영, 임방울 유물 전시실 운영, 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관소리에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관소리의 본령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변형과 변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중과 공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관소리도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마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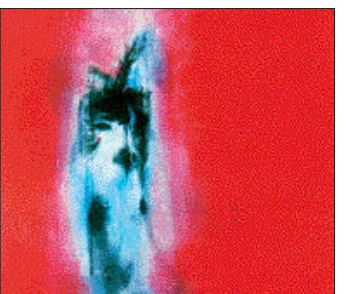
21일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정기총회를 통해 정식 임기를 시작한 김 이사장은 광주 MBC 사장, 광주 비엔날레 이사장, 호남대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주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전=고성기자 ksgo@kwangju.co.kr

생활속 미술 '또 하나의 창'

금호동 상용에가 모델하우스서 전시회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양화가들이 광주시 서구 금호동 상용에가 모델하우스에서 '또 하나의 창'을 주제로 21일까지 전시회를 갖는다.



장진 작 '시적공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주거공간에서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생활과 미술을 접목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참여 작가는 서울대 동양화과 출신 김건일, 문성모, 박효민, 장진, 정경수 등이다. 김건일씨는 수묵으로 꽃을 형상화한 'Water flower'를 선보이고 박효민씨는 여성의 얼굴을 담은 '4년'을 출품했다.

정경수씨는 'being in circular travels', 문성모씨는 '흔든', 장진씨는 '시적공간'으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세계의 연 다 모였네!

연전시회 내달 4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세계 각국의 전통 연(燕)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다음달 4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우리나라의 방패연, 가오리연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에서 출품한 40여점의 연이 선보인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전통놀이 기구인 연을 통해 새해소망을 빌고 액운을 쫓던 옛사람들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 문의 062-570-7028.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성 10명 중 6명은 女兒 선호”

아가방 회원 2,642명 설문조사

여성 10명 중 6명은 여아를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이 지난 1~15일 자사 홈페이지(www.agabang.com)를 통해 회원 2천6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아를 선호

한다는 응답이 60%로 남아를 선호한다는 응답(40%)보다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원하는 자녀 수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0%가 '2명'이라고 답했고, '1명' 24%, '3명' 15% 등이었다. 출산 계획시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는 탁아문제(45%)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경제적인 여건(35%), 자기계발(12%) 등을 그다음으로 들었다. /연필뉴스

師弟가 함께하는 피아노 페스티벌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피아노 페스티벌이 25일 오후 4시 광주남구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범영숙이아도교육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정희씨 등 지도교사들과 조은자·박수진·한수정 양 등 학생들이 함께 출연한다.

연주곡은 '깃가래 행진곡' '사냥꾼의 합창' '헝가리안 무곡 5번' '코시코스 우편마차' 등이다. 문의 062-267-554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LC타워(주), 일가공인중개사, 민음공인중개사, 동부부동산(주), 토우드공인중개사, 다우공인중개사,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and others. Each ad lists property details, contact info, and agency services.